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KAC 한국 예술원/문화창작예술학부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1회 KAC 청소년 단편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혜음"
수상내역	금상
작가	이현정
공모분야	시나리오
줄거리	<p>혜주는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과, 전체적인 개인의 생각보단 성적이 중요시되는 교육의 방식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p> <p>그래서 야간자율학습 자율화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여 야간자율학습 참여 자율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자 스스로에게 실망한 나머지, 자퇴를 하였습니다.</p> <p>편의점 알바를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혜주를 찾아온 예원은 "바꾸기 위해서 건디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며 학생증을 돌려줍니다.</p> <p>2년 후, C여고 입학식에서 혜주는 장학금을 수여받고, 4년 후, K대학 면접에서 기존 교육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로부터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방식을 주입하는 학교가 아닌 학생 개인의 '생각'이 존중되는 대안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라고 말합니다.</p>

<혜움>

#1. S동 편의점/오전(2012년 11월)

전체적으로 깔끔한 동네. 오래된 건물하나 볼 수 없다. 겨울인 걸 보여 주듯 하얀 눈이 쌓여있는 풍경. 그중 푸른색의 법원과 검찰청이 가장 눈에 띈다. 그 아래 상가에 위치한 한 편의점. 황토색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이 편의점을 두어 바퀴 돌더니 삼각 김밥과 우유를 계산대에 내려놓는다.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작은 키에 앳되어 보이는 얼굴이 누가 봐도 성인이 아닌 영락없는 학생이다. 등교시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혜주(17).

혜주 1700원입니다.
여학생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넌다)

여학생이 돈을 꺼낼 때 지갑에서 같이 떨어진 황토색 학생증. S여고의 학생증 이다.
학생증을 주워들고 급히 편의점으로 나가 학생을 부르는 혜주.

혜주 (학생증을 건네며)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손님.
여학생 아! 감사합니다.

편의점 맞은편인 S여고로 들어가는 여학생을 보며 회상하는 혜주.(O.L)

#2 회상 - 교실(2012년 5월)

몇몇의 학생들이 편의점에 있던 여고생이 입고 있던 교복과 같은 황토색 교복을 입고 있는 교실. 야자시간, 교복을 제대로 입고 있는 학생은 2~3명 정도. 나머지는 와이셔츠만 입고 있거나, 반팔을 입은 채로 책상에 엎어져 자고 있다. 지친 분위기의 교실. -교실의 유리 창문 밖으로 중년의 뚱뚱한 여교사 A가 지나가다 학생들을 본다. 화난 얼굴로 교실 문으로 들어와선 손에 들고 있던 리코더를 뺍- 하고 분다. 놀라서 깨는 학생들. 반팔에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도 안채우고, 아래는 체육복 바지를 입은 혜주만 계속 엎어져서 잔다. 혜주의 책상 앞에 선 여교사A.

여교사A (리코더로 책상을 치며)야. 너 일어나!!!일어나!!!시험이 몇 주나 남았다고 자는 거야?

그러나 미동도 없는 혜주. 문제집엔 침도 흘리고 있다. 깊이 잠든 듯 작게 코도 골고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반 학생들 피식 웃음 짓는 소리. 그걸 보고 화난 여교사A. 들고 있던 리코더를 있는 힘껏 분다. 아까보다 더 큰 빼이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놀라서 책상을 박차고 일어난 혜주. 그 모습을 보고 반 학생들 전체 큰 소리로 웃는다. 그 소리를 듣고 더 화가 난 듯한 여교사A.

여교사A 임혜주. 교무실로 지금 나 따라와. 당장.
혜주 아 쌤.....죄송해요. 어제 밤새서 그랬어요.
여교사A 알짬없어. 당장 따라와. 너 어제도 그랬잖아.
그리고 복장이 그게 뭐야? 아무리 야자 시간이라도 그렇지.

교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여교사A. 부스스한 머리와 덜 뜨인 눈으로 뒤따라가는 혜주. 혜주 나가자 반 아이들 피식 웃더니 다시 엎드린다. 적막감이 흐르는 우울한 교실. 야간 자율학습의 늦은 시간을 보여주는 듯 창밖은 새카만 밤이다.

NA(혜주) 2012년 충북,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를 하는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곳의 고등학교들은 ‘신청’이 아닌, ‘의무’였다.

(장면)교무실 안, 책가방을 멘 학생과 교사가 실랑이를 하고 있다.

NA(혜주)하루라도 야자를 하지 않으려면, 담임선생님과 말씨름을 해서 빼야 했고, 입실 시간 1분이라도 늦으면 벌을 받아야 했다.

#3 회상 - 교실(2012년 5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혜주. 학생들 떠들고 있다가 교사가 들어온 줄 알고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혜주인 걸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속 떠든다. 그걸 보면서 잠시 생각 하는 듯 하다가 자리에 앉아서 연습장을 찢어서 무언가를 쓴다. 서명서 INSERT

서명서

대상: 전교생

강제 야간자율학습. 정말 야간‘자율’학습인가? 학생들은 진정한 자율화를 원합니다.
아래 칸에 서명해주세요.

학번/이름	그 밖 의견

#4 회상 - 각 교실(2012년 5월)

성명서가 여러 장 복사된 종이를 들고 각 반의 게시판마다 붙이는 혜주. 몰려드는 아이들. 종이에 하나 둘씩 서명을 하기 시작 한다. 수업종이 울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리는 학생들. A여교사가 소란스러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종이를 본다.

#5 회상 - 상담실(2012년 5월)

따뜻한 분위기의 상담실. 둥근 원형 테이블에 여교사A와 혜주가 마주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혜주가 만든 서명서가 놓여 있다.

여교사A 이런 걸 하려면 미리 담임선생님과 상의 정도는 했어야지.
혜주 죄송해요. 선생님께 말씀 드리면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교사A 죄송하면 됐어. 이제 이 종이 반마다 회수해. 알았지?
혜주
여교사A 그런다는 뜻인 걸로 알게. 선생님은 업무가 있으니까 간다.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의 종이를 정리해 들고 일어서는 여교사A. 여교사A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문고리를 쥐는 순간, 자리에서 계속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던 혜주가 일어나서 A의 손목을 잡고 말한다.

혜주 선생님, 근데 이거 정말 해보면 안 되나요?
여교사A (한숨을 쉬며)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혜주야, 야자를 반강제적으로 시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의 자유를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게 학교야.
혜주 (조금 큰 목소리로)조정이요? 선생님이 보시기엔 이게 약간의 조정으로 보이세요?
여교사A
혜주 선생님, 하루 종일 학교에서 간혀서 생활하고, 부모님 얼굴 뵙는 시간이 하루 1시간도 안되고, 집에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가 아닌 학교에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같은 기분 아세요? 그리고 제 꿈이랑 생각은 따로 있는데, 다 무시당하고 다 똑같이 좋은 대학을 목표로 이야기하게 하는 게 그냥 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강요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교사A (질린다는 표정으로)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여교사A가 상담실 문을 쾅 닫고 나간다. 혜주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기쁘게 상담실을 나선다.

#6 회상 - 교실(2012년 5월)

NA(혜주) 그 후 나와 우리 반 아이들은 서명서를 전교에 돌렸다.

교실에서 앞 다투어 서명하는 학생들.2~3줄밖에 없던 서명서가 점점 채워지고, 책상 위에 여러 장 쌓인다. 혜주의 책상 위에 엄청나게 쌓인 서명서들.

NA(혜주)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서명서가 채워지고, 전교생380명 중 352명의 서명으로 우리는 마침내 교장실에 갔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승인을 얻으며 야간자율학습의 진정한 자율화

를 이루어 냈다.

수업 중인 교실. 방송을 알리는 땡땡 땡땡-소리가 들린다.

아나운서 수업 중 죄송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야간 자율학습 참여의 자율화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귀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단, 유흥업소 출입이나,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학생은 학교의 규율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겠음을 알립니다.

수업 중에 졸고 있다가 눈이 번쩍 뜨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는 학생들. 카메라가 학교 외관 건물 전체를 비춘다. 전교에서 들리는 환호성 소리.

NA(혜주) 그러나, 허무하게도 야자 자율화는 일주일 만에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선생님도, 교장도, 교육청도 아닌…….

자막: 일주일 후

#7 회상 - 교장실(2012년 5월)

창문에서는 햇살이 들어온다. 조용한 분위기에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교장실. 그 평화로움을 깨듯 시끄러운 전화벨이 울린다. 나이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 교장이 컴퓨터로 타자를 치다가 전화를 받는다. 전화 속 들리는 목소리는 중년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

교장 네. S여고 교장실입니다.
전화 네. 안녕하세요. 2학년 학부모인데요, 요즘 야자 자율화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교장 예. 학생들 대부분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학교에서 야자를 시켜줘야 공부도 하고 그럴 텐데, 아이가 매일 집에 와서 놀잖아요. 학교가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학교예요?

한숨을 쉬는 교장.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리는 전화벨. 한편 교무실에서는, 교사들마다 전화기를 붙잡고 상황설명을 하고 있다. 전화벨과 말소리로 시끄럽다.

#8 회상 - 교장실(2012년 5월)

교장실, 회의를 하는 것처럼 교장과 대부분의 교사가 긴 테이블에 앉아 있다. 모두 무거운 얼굴 표정.

교사1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학부모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요.
교사2 맞아요. 다른 학교들은 다 야자로 학생들을 잡아 주는데, 우리 학교만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대학 못가면 책임 질 수 있냐는 등…….
교사3 아직 야자 폐지는 무리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아이들은 원래 일탈하고

싫어 하는 법이에요. 조금 지나면 진정될 겁니다.

#9 회상 - 교실(2012년 5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쉬는 시간. 교실에 방송을 알리는 Ding Dong- 하는 소리가 들린다. 조용해 저서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

교장(방송) 알려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야간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너무 거센 관계로, 오늘부터 다시 야간자율학습을 의무화 하여 실시합니다. 학생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성실하게 야간자율학습에 참여 바랍니다.

NA(혜주) 선생님도, 교장도 아닌, 우리 엄마들에 의해 야자는 다시 반강제 시스템으로 돌아갔다. 학생들의 실망감은 대단했고, 그 원망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왔다.

#10 회상 - 교실(2012년 5월)

창문 밖이 어둡다. 교실에 모여 야자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지친 얼굴, 무기력한 모습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는 학생들이다. 모두가 지친 모습. 책상 밑에 몰래 손을 넣어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예원(17). 스마트폰의 화면 C.U

MBC인기 프로그램 무한 도전, 청주에서 촬영 중.

예원, 깜짝 놀라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 했다. 놀라서 커진 눈으로 짹짹 바라본다.

짹짹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왜?
예원 (작게 중얼거리며)지금 시내에서 무한도전 촬영 중이래.
짹짹 (큰 목소리로)헐!! 뭐라고?

예원 짹짹의 큰 목소리 때문에 반 학생들 모두 그쪽을 쳐다본다. 술렁거리는 교실.

학생1 지금??무한도전 촬영한다고? 아~ 보러가고 싶다.
학생2 그러게. 이놈의 야자만 아니면 당장 가는 건데. 짜증나.

교실 전체가 술렁이고, 그 웅성거림이 점점 커진다. 혜주, 조용히 책을 읽다가 술렁거리는 소리에 얼굴을 찌푸린다.

혜주 애들아, 조용히 하자. 선생님 오시겠다.

자리에 일어나서까지 잡담을 하고 있던 예원, 혜주 자리로 걸어간다. 혜주 앞에서 조소를 띤 채 말하는 예원.

예원 넌 참 양심도 없다. 지금 누구 때문에 애들이 보러 가고 싶은 연예인 하나 못보고 있는 건데.
혜주 그게 왜 나 때문이야? 학부모 분들이 반대하셔서 취소된걸.
예원 처음부터 그런 서명 할 거면 그런걸 고려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애들이 원한다고 다 해결될 일이 아니지.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없이 서명부터 진행 한 거가 잘못 된 거 아니야?

예원의 말 때문에 다시 한 번 술렁이는 교실. 점점 그 소리가 커진다. 그때, 교실 문이 큰 소리를 내며 열린다.

남교사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다들 자리에 안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하는 학생들. 다 같이 공부하는 척 한다. 예원도 할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간다. 자리로 돌아가면서 눈을 흘기는 예원.

#11 회상 - 교무실(2012년 7월)

자막 : 두 달 후

책가방을 메고 손에는 큰 짐가방을 두 개 든 혜주. 교무실 여교사A의 책상 앞에서 인사를 한다. 가방을 들고 천천히 학교 복도 계단을 내려가는 혜주. 학교 문 밖으로 나온다. 교문을 나가기 전에 학교 건물을 한번 돌아보고 이내 발걸음을 교문 밖으로 디딘다. 교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콜택시. 택시에 타서 학교 건물을 다시 바라본다. 출발하는 택시. (카메라)학교 건물과 떠나는 택시를 전체적으로 비춘다.

NA(혜주)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독하게 더운 여름, 나는 학교를 자퇴했다. 밤마다 학교에서 시들어가는 학생들의 원망을 감당할 수 없었고, 학교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 대책 없이 그런 일을 벌였던 나 자신에게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12 현재 - 편의점(2012년 11월)

창밖엔 뽕얀 눈이 쌓여 있다. 편의점 카운터에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혜주. 손님 하나 없이 텅텅 빈 편의점. 문이 열리는 딸랑- 소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예원이다.

예원 도서관 다닌다더니, 이런 데서 알바나 하고 있냐.
혜주 어떻게 알고 왔어?
예원 애들이 너 여기서 봤다고 하길래. 너한테 찢리는 것도 있어서 와 봤어.
혜주 (휴대폰을 쳐다보며)네가 나한테 찢리는 게 뭐가 있어.

예원 그때, 내가 너한테 쏘아 붙인 거…….그거 때문에 학교 그만둔 건 아니지?
혜주 (웃으며)내가 미쳤나. 그거 때문에 자퇴하게. 원래 생각 중이었어. 그거 물어
 보러 온 거야?
예원 응. 넌 그래도 용기 있는 시도를 한 건데…….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주제에
 너한테 쏘아 붙인 게 찢려서…….그땐 미안했어.

편의점 카운터 위에 ‘검정고시 5개년 기출 문제집’ 이 놓여 있다. 그걸 보는 예원.

예원 너 검정고시 보게? 재입학 안 하고?
혜주 생각 중 이야. 재입학해서 잘 견딘다는 확신이 없어서. 아직 고민 중.
예원 그래? 아 맞다. 나 이거 전해 주러 온 건데. 너 이거 놓고 갔더라.

예원이 주머니 속에서 꺼낸 것은 아침에 그 여고생의 것과 같은 [S여고의 학생증] 이다. 학생증에는 굵은 글씨로 ‘임 혜 주’ 라고 쓰여 있다.

혜주 필요 없어. 가져가.
예원 뭐 딱히 쓸 데는 없겠지만…….그래도 내가 계속 갖고 있기는 찝찝해서.
 그냥 뒀다가 뭐 할인 받을 때나 써. 나 간다.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다시 뒤 돌아 보는 예원. 다시 카운터로 돌아온다.

예원 그래도 너 덕분에 일주일동안 야자 안 해서 고마워서 하는 말인데,
혜주 …….
예원 바꾸기 위해서 견디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잘 생각 해봐.

예원이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가고, 다시 조용해진 편의점 안. 카운터엔 ‘검정고시 5개년 기출문제집’ 위에 S여자고등학교 ‘임 혜 주’ 의 학생증이 놓여 있다. 그걸 한참을 바라보는 혜주.

#13 현재 - 혜주 방(2012년 11월)

밤이라서 어두운 혜주의 방 안. 은은하고 옅은 조명만 비춰지고 있다. 분홍색 벽지와 여기 저기 귀여운 인형들.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혜주. 스탠드 불만 작게 켜져 있다. 책상 앞에서 예원이 주고 간 S여고의 학생증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FI)예원이 편의점에서 나갈 때의 장면. ‘바꾸기 위해서 견디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다시 돌아온 화면) 의자에서 일어나서 창문으로 가는 혜주. 창문 밖에는 집 바로 앞의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학생들이 재잘재잘 떠들며 하교하고 있다. 다시 책상으로 와서 학생증을 어루만지다가 이내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거는 혜주.

혜주 거기 북 스토리 서점이지요? 어제 사간 검정고시 기출 문제집 환불 되나요?

#14 - C 여고 입학식(2013년 3월)

C여고 강당. 큰 강당에 걸린 현수막 [제 48회 C여고 입학식]

입학식인 만큼 학생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담겨 있다. 강당 뒤에는 학부모들이 잔뜩 몰려서 흐뭇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다. C여고의 교복은 회색이지만 강당엔 큰 창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밝고 활기찬 느낌이 난다.

강당의 무대 위 단상에는 C여고의 교장이 마이크를 잡고 있다.

교장 에…….다음은, 장학금 수여를 하겠습니다. 1학년 1반 임 혜 주.

무대로 향해 있는 계단을 오르는 교복 차림의 혜주. 얼굴 표정이 밝다.

교장 장학 증서. 위 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본교에 입학했기에 본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13년 3월 2일 C여자고등학교 교장.

장학증서를 받는 혜주. 그리고 교장이 직접 학생증을 목에 걸어 준다. 강당의 큰 창 안으로 햇살이 잔뜩 들어온다. 큰 박수소리가 들리고, 혜주는 인사하며 밝게 웃는다. 목에 걸린 학생증에 햇살이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난다.

#15 - K대학 면접(2015년 12월)

긴장감이 흐르는 면접 대기실. [2016학년도 K대학 면접고사]현수막이 걸려 있다. 청심환을 먹는 학생, 심호흡을 하는 학생, 예상 질문을 들여다보는 학생과 기도하는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그때, 양복을 입은 사무원이 대기실문을 열고 들어와서 정적을 깬다.

사무원 대기번호 16번 이민영, 17번 이지혜, 18번 이해연 양 들어오세요.

그 말에 한숨을 쉬는 많은 대기 중인 학생들. 그 중에 혜주가 있다. 단정하게 하나로 틀어 올려 묶인 긴 머리. 까만 정장을 입어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인다. 가슴에는 [대기번호 20번 임 혜 주]라는 명찰이 달려 있다. 긴장되는 듯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러대다가 이내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혜주. 앞서 불려나갔던 학생들 셋이 대기실로 돌아오고, 사무원이 대기실 문을 열고 말한다.

사무원 대기번호 19번 이현정, 20번 임혜주, 21번 최지혜 양 들어오세요.

#16 - 면접실 안

긴장된 분위기 속, 의자에 앉은 혜주. 앞에는 다섯 명의 면접관들이 앉아 있다. 여전히 긴장이 된 듯 굳어있는 혜주의 얼굴. 책상 위의 서류를 검토해 보는 면접관들. 면접실 안은 종이 넘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F.I) 2012년 5월, 혜주가 책상 위에 쌓인 서명서 들을 세고 있는 모습.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난다.

(다시 돌아온 화면) 그때를 떠올리는 듯 작게 웃음 짓는 혜주. 이내 호흡이 편안해지고 얼굴 표정이 풀린다. 면접관들을 편안하게 응시한다.

면접관1 임혜주 학생은 2012년에 학교를 자퇴하고 재입학을 했네요?
혜주 네. 맞습니다.
면접관1 왜 자퇴를 했고 재입학을 했어요?
혜주 저는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과, 전체적인 개인의 생각 보단 성적이 중요시되는 교육의 방식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시도를 해 봤지만, 잘 되지 않아서 자퇴를 하였고, 바뀌길 바라지만 말고 상황을 이겨 낸 후에,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 방식이 실현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재입학을 선택했습니다.

작게 미소 짓는 혜주. 또 다른 면접관이 질문을 한다.

면접관2 방금 교육의 방식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혜주 처음 저는, 그저 보수적인 학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의 사고방식이 딱 막힌 것 이고, 그분들만 바뀌면 자율적이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보내는 데 매달리는 데에는 더 커다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F.I) 초등학교 저학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울상을 짓고 있는 아이.

엄마 엄마가 오늘은 학원가는 날이라고 했지! 너 이래서 성적은 어쩔래?

혜주(목소리만 삽입) 지금 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성, 개인의 생각보다는 대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사람들은 교육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자기 자식만은 꼭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만의 ‘생각과 꿈’은 완전히 무시한 채 말이죠. 이런 사회 풍토 때문에 학교는, 학생의 생각과 꿈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도록

하게 됐죠.

(다시 장면) 질문을 한 면접관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또 다른 면접관이 질문한다.

면접관3 매년 자퇴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줄이고 대체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교사가 된 후 본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혜주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을 틀린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특성을 존중하고 배려 하는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교사가 되어 기존 교육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로부터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방식을 주입하는 학교가 아닌 학생 개인의 ‘생각’이 존중되는 대안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자 제 꿈입니다.

#17 - 넓은 들판(에필로그)/오후

햇살이 밝게 비치는 넓은 들판, 주위엔 작고 귀여운 들꽃들이 있고, 작은 강아지가 뛰어다닌다. 들판 위에는 작고 예쁜 노란색 건물이 꽃담으로 둘러 싸여 있다. 꽃담에서 건물로 가는 입구엔 작은 표지판이 붙어있다 [혜음 대안학교]

이때,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아이가 꽃담을 씩씩거리며 뛰어나온다. 뒤따라가는 선생님이 된 혜주.

혜주 설아야,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다시 가서 벽화 그리자. 응?

설아 민준 오빠가 제가 병아리니까 노란색으로 칠해야 한다고 했는데 빨간색으로 칠해줬어요!! 벽화고 뭐고 다 망했어요. 아 짜증나.

혜주의 뒤에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어하는 표정의 남자 아이가 서 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웃으면서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혜주.

혜주 설아야, 민준 오빠가 모르고 그런 걸 거야. 그리고 병아리를 꼭 노란색으로 그려야 한다는 법 있어? 선생님은 빨간색 병아리도 예쁜 것 같은데.

설아 (살짝 놀라며)진짜요? 병아리 빨간색으로 칠해도 돼요?

혜주 그럼. 그리고 민준 오빠도 미안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

설아 네~

햇살이 비치는 잔디언덕 위, 학생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혜주. 점점 멀어지면서 [혜음 대안학교]의 꽃밭 아래에 있는 문구가 보인다.

혜음 : ‘생각’을 뜻하는 순 우리말. 나만의 혜음이 숨쉬는 이곳으로 오세요♡

-The End-